

# 강진군, 산불대응센터 준공...초동대응체계 구축

### 국·도비 포함 총 4억원 예산 투입...162㎡ 규모 산불진화대원 대기실·차고지·진화장비 창고 설치

강진군은 지난 13일 군수를 비롯한 산림조합장, 산불진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대응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 초동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대응센터는 국·도비를 포함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청 부지 내

에 약 50평 규모로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차고지, 진화장비 창고 등을 갖추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해준 산불진화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며 "아름다운 산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1월부터 진화대원 19명과 읍·면 감시원 44명을 채용해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과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단속, 농업 부산물 파쇄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 "참문어·삼치 감성돔 잡지마세요"

진도군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에 새롭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는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금어기이다. 또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 한달동안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낚시인과 레저 스포츠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조성용기자

##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토론회 성료

### 고속철도 구축 필요성·당위성 공표...세부 추진 방안 모색



완도군은 지난 14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완도군변영회(회장 정남

선)와 완도군청년연합회(회장 우민안)가 공동 주최하고,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이 주관, 전라남도가 후원하였으며,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전남도와 강진군, 해남군 관계자, 완도군민 등이 참석했다. 먼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강승필 교수는 "현재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륙 진출형 교통 계획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완도를 경유하여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한반도 서부축의 고속 교통망 구축, 항공 여객 운송 사고의 위험성, 기상 요인으로 항공 운송의 신뢰도 저하,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의 필요성, 기대 효과, 문제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치유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완도군민은 "토론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완도 경유 고속철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고, 군과 전라남도의 사업 추진 의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이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전라남도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철도망 계획과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 장흥군 '친환경 배합사료' 첫 해외 수출로 힘찬 도약 예고

### 매월 14톤 필리핀으로 수출...10년 6백만 불 계약 체결



장흥군은 지난 4월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준공한 것에 이어 첫 해외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국은 필리핀으로 매월 수출량 14톤(700포대/20kg), 수출액은 약 5천만 원이며 올 한해 수출액은 4억 원(40만 불)으로, 10년간

6백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 배합사료 가공 공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24일 준공했으며, 현재까지 배합사료 생산량은 약 60톤, 생산액은 42억 원 가량이 이른다. 가공공장 연면적은 2,553㎡(772평) 규모로 총 65억 원(보조 32억

원(국비20/군비12), 자담 33억 원)을 투자했다. 앞으로 규모를 확장하여 명실공히 장흥군에서 제일가는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배합사료 위주로 출하하고 있지만, 앞으로 넘치 등 다양한 어류 사료 개발로 국내 내수면 양식 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필리핀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일본, 중국까지 수출 길을 확대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외국인 입맛에도 딱 맞아요" 땅끝 해남고구마 홍콩 수출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땅끝 해남의 고구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의 입맛을 유혹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화산면 해남고구마협동조합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해남고구마 선적행사를 가졌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고구마에 비해 당도와 당도가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해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상품성이 우수해 ㎏당 1만5000원 가량의 높은 가격에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유럽과 동남아 등 4개국에 80여t(3억원)의 고구마와 고구마 가공품을 수출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싱가포르 홍콩 등 2개국에 40여t(1억원)을 수출한데 이어 향후 60여t(3억원)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고구마 수출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와 함께 바이러스 무균묘 보급, 각종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관내 화산농협에서는 고품질 생산 및 관리, 해남고구마협동조합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과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수출 확대에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암소 임신진단 사업 호응

강진군이 관내 한우·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혈액 단백질을 이용한 임신진단 사업을 추진해 축산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인 소 임신 여부는 인공 수정 60일 경과 후 초음파나 직장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혈액 내 임신특이 단백질을 이용하면 30일 이상 앞당겨 98%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리실 내에 기반장비와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임신진단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1,200두가 넘는 누적 진단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많은 축산 농업인들이 경영상 수혜를 보고 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개선과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